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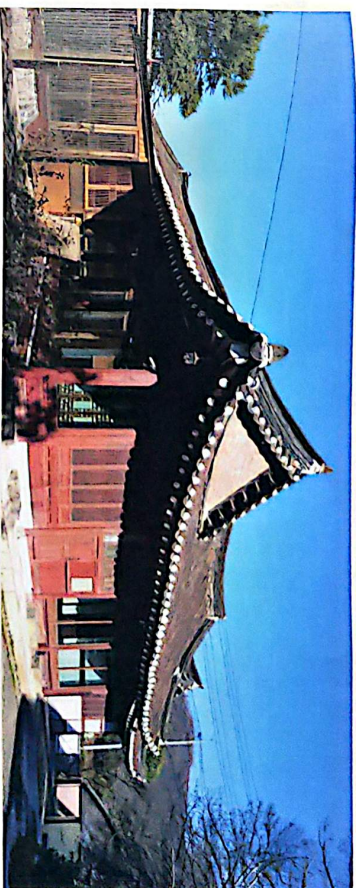
역사의 품격과 위엄이 그대로... 100년 전 고택에서의 삶을 엿보다 세종 흥판서택·김계식 가옥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는 경부선 철도 부강역과 오래된 자연마을들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도시다. 이곳에는 충청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가옥 구조를 지닌 세종 흥판서택과 근대기 대부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김계식 가옥 등이 위치해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원형의 모습을 지켜오며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이야기를 전하는 고택들을 살펴봤다.

충청 지역서 보기 드문 구조 지닌 흥판서택

부강면 옹포동종길 43-19에 자리 잡은 세종 흥판서택은 고종 3년(1866)에 지어진 고택으로, 병조판서와 예조판서를 지낸 홍순행이 소유했던 가옥이다. 논밭이 완만한 경사지 남쪽에 자리한 흥판서택에 들어서면 대문을 향하고 있는 사랑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기운대가 몸채이고 인체 쪽으로 꺾어지는 좌우 1칸씩이 남쪽에 해당하는데, 몸채에는 대청과 아래 맞방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앞으로는 뒷마루를 놓았다. 양 옆 날개는 각각 곳간과 방 한실로 된 이궁이 있다.

특이하지 않아 더욱 고요하게 느껴진다. 안마당에는 물을 길어올리는 우물이고, 뒷마당에는 장독대가 위치해 있고, 감나무와 대추나무, 향나무 등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한다. 당시의 고전적인 기법으로 지어진 세종 흥판서택은 현재까지 보존 상태가 양호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특히 안마당이 트이지 않은 '모지형 평면구조는 충청지역에서 보기 드문 형태로,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1984년 국기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세종 흥판서택은 다양한 문화행위 프로그램이 열리는 장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인문학 콘서트, 국악 공연, 작문 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흥판서택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흥판서택 내부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강 한옥 탐험이 운영된다. 학생들이 전통 한옥의 공간 구조와 생활양식, 온돌과 마루의 단열 동풍 원리, 건축 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김계식 가옥 사랑채

근대 부강의 지역경제 엿볼 수 있는 김계식 가옥

부강역에서 부강면사무소 방향으로 10분 남짓 걸어 내려가면 부강리의 또 다른 오래된 가옥이 나타난다. 목조 구조의 건축을 위로 수려한 기와시들이 놓인 이곳은 1913년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장원경 김계식이 지은 김계식 가옥(부강면 청연로 37)이다. 김계식은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부강의 대표적인 부호였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양반 가옥으로 지어진 김계식 가옥은 근대 부강의 지역 경제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자 지방 대부호 지역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에서 몇 안 되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김계식 가옥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전면에 'ㄴ'자형 곳간채와 'ㄱ'자형 사랑채가 연결된 구조다. 후면에는 'ㄴ'자형 안채가 동일한 축선 상에 자리해 전체적으로는 '모지형'을 띠고 있다. 현재 행랑채는 소실되어 터만 확인할 수 있고, 별채는 부강 천주교회에 매매했다.

삼림지대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오며 주방, 화장실 등 일부 층 축변형된 공간은 있지만 처음 지어진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최근까지도 후손들이 거주하며 '백년옥'이라는 식당으로 운영되기도 했던 이곳은 지난 2018년 전통가옥으로서의 보존 활동을 위해 백영기 문화유산한국회 대표에게 매각됐다. 당시 후손들은 대대손손 전해내려온 각종 문집과 문서, 족보 등 일체 강점기 시절 79점을 함께 기증하기도 했다. 높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4년에는 세종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비단 역사적 가치가 풍부하지 않아도 고택에서 느껴지는 위엄과 품격은 그 자체로 보는 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넨다. 10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지역의 변화를 지켜본 고택들에서 변함없이 이어져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김계식 가옥

